

보도설명자료

(’17. 6. 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더운데...아직 아니라네요” 공공기관·학교는
버티는 중

(’17. 6. 1, 헤럴드경제)

1. 기사내용

- ☐ 공공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‘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’에 따라 28도를 넘어야 냉방을 할 수 있음
 - 하지만, 현실적으로 기준 기온을 넘지 않는 날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의 경우 실내온도가 높아 불쾌해지거나 경우가 많으며, 학교,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은 찜통더위를 참으며 버티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‘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’에 따라 공공기관은 냉방시 원칙적으로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지만,
 - 학교, 도서관, 민원실, 의료기관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거나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등에는 이러한 온도 제한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, 해당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실내 온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
- ☐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학교, 공공기관 등에 이러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, 적절한 실내 온도 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유범민 과장 (044-203-5360)
박재형 사무관 (044-203-5362)